

남서울 목장 모임(6월 4일)

Worship 찬양과 경배

찬송 213장 / 나의 생명 드리니

Words 말씀

본문 로마서 6:1-14 /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 위해 죄를 더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침례)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죄에 대해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제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합니다. 더 이상 죄가 자기 몸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1]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죄를 멀리합니다(1-7절).

1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려는 생각은 왜 잘못된 것입니까(1, 2절)?

2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3-5절)?

3 우리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은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6, 7절)?

<나눔1>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 죽은 자, 죄의 종이었다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경험한 '죄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해봅시다.

[2] 그리스도인은 자기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합니다(8-14절).

1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자신을 어떤 존재로 여겨야 합니까(8-11절)?

2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는 자'는 자기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12, 13절)?

3 죄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을 주장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14절)?

<나눔2>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자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자기 몸으로 영위하는 구체적인 삶의 정황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게 만드는 죄의 유혹을 생각해보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지 이야기 나눠봅시다.

Work & Witness 사역나눔

1. 기초제자양육(16기) 과정 안내

- 대상 : 새가족반 수료 후 신앙의 기본 양육을 원하는 성도
- 신청 : 목자가 피양육자를 추천하되, 양육자(목자 본인 가능)를 섭외하여 교구 목사에게 신청

2. 창조신앙주일 특강 안내

- 일시 : 6/11(주일) 오후 7:30
- 장소 : 본당
- 강사 : 우병훈 교수(고신대 신학과)